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제1독서 : 2역대 24, 18 - 22

제2독서 : 로마 5, 1 - 5

복 음 : 마태 10, 17 - 22

순정이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태 10, 20)

강론

성인이 되게 하신 하느님의 은총(성령)을 기리자

김기곤 신부/성글라라 봉쇄수도원 지도신부

이 주일의 독서와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측에서 무엇을 하거나, 해야하는 것보다 하느님 측에서 무엇을 하시거나 해 주신것을 가르치고 있다.

1독서에서 하느님은 예언자 즈가리야로 하여금 당신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니, 야훼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외치게 하신다.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안에 하느님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설파하고, 복음은 잡혀갔을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무슨말을 할지 알려주실거라 말씀하신다. 이 말씀들은 보통 주일 말씀들과 달리 전적으로 하느님 편에서 우리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심을 드러내 주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하느님 측면의 복음(복음중의 복음)이라 하겠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 성인인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순교 기념일이다. 이날을 맞아 교우들과 특별히 사제들에게 귀감이 되는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탁월한 학구열과 인내심, 선각자로서의 정의감과 통찰력, 사목자로서의 목자적 열성과 사랑, 순교자로서의 굳건한 신앙심등을 기림은 그분의 후예인 우리로서 당연한 도리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가 하느님과 교우들을 향해 불태운 사랑의 불꽃은 그 안에 부여진 성령의 힘이었으며(2독서),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진리를 고수하며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음은 즈가리야에게 작용한 하느님의 영이요(1독서), 오늘 복음이 말씀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성령 유입이었다. 그리고 보면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 되도록 힘을 주신분도, 성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느님의 은총(성령)이 아니었던가? 그러기에 지금껏 「성인이 되게 하신 하느님의 은총(성령)」을 기림 또한 간과할 수 없겠다. 전자의 기림과 더불어 후자의 기림이 동시에 부각될 때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를 더 풍요롭게(복음적 측면에서) 기릴 수 있을 것이다.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순교자 감사송)

소리

「라파엘」호를 띄우자

엘리노 영향 때문에 모기의 극성이 유별난 올 여름이다. 그래도 정주영 화장이 몰고 간 소떼의 행진이 있어 조금은 넉넉했는데, 북한은 무슨 심술통 조화인지 잠수정을 침투시켜 소들의 두 번째 행진이 연기될 것이라 한다. 하루하루가 오락가락하는 장마 전선만큼이나 복잡한 요즘, 퇴출은행 정리까지 시작되어 온통 어수선하기만 하다.

이러한 와중에도 ‘실직자 돕기 자선 대 바자’를 알리는 한 장의 사진이 생기를 부른다. 사진 옆에 실린 기사 또한 향그럽다. 실업극복 국민운동 본부에는 무언가를 내어놓겠다는 사람들과 기업체가 더러 있다고 한다. 찜통 무더위에 쏟아지는 한줄기 소낙비 같아 청량감이 그만이다. 세상 살아가는 맛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가 보다.

여기저기에서 ‘실직자 돕기 사랑의 물품 바자’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니 문득 우리 교회에서 열었던 바자회가 생각난다. 그간에 우리가 연 바자회가 얼마나 그 본뜻에 맞게 운영되었는가 하는 반성 말이다. 좋은 뜻을 위해서랍시고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치게 조장하지나 않았는지 한 번 살펴볼 일이다.

지금은 누구나 먹고 살기가 힘든 때이다. 그리고 그러할수록 우리의 나눔이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사실 넘어야 할 첩첩산중을 생각하면 심란하기 그지 없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 목선 라파엘호 한 척으로 망망대해를 건넌 김대건 신부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甲)

순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집 회 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집회서는 기원전 180년경 히브리어로 씌어졌다. 지금 전해 오는 것은 기원전 132년에 저자의 손자가 희랍어로 옮긴 번역본이다. 히브리인들은 집회서를 영감받은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서목록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 제2경전으로 취급하고 있다.

집회서의 원제목은 "시라의 아들(Ben Sira) 예수의 지혜(51, 30)이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시라서'라고도 부른다. '집회서'라고 명칭이 바뀐 것은 그리스도교 초세기에 이뤄진 일이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에게 수시로 이 책을 사용했고 실천행동 규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이다. 사실 집회서는 지혜서들 가운데서 도덕적 교훈이 가장 풍부하다.

집회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인들이 희랍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점 이교화 되어 가는 상태에서 이교 지혜의 무능을 지적하고 이스라엘만이 간직하고 있는 참 지

혜를 동포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집회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집회서는 이스라엘 고유한 의식(意識)과 양심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참 종교와 민족의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등지고 희랍 문화와 종교에서 새로운 지혜를 모색하는 마당에 집회서는 그들을 질책하고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다. 희랍의 지혜가 편하고 까다롭지 않을지 모르나 거기에는 속임수가 들어 있으며,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와 계시를 대신할 다른 지혜나 문화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집회서의 가장 깊은 사상은 24장에 나와 있다. 신적 지혜(神의智慧)에 대한 찬미가이다. 지혜께서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형식인데 가히 집회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36장, 1~17절은 한 편의 아름다운 기도문인데, 박해 초기에 선량한 이스라엘인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기도문이다.



1998년 성령의 해

“왜 희년을 경축합니까?”

3. 새로운 천년기는 오직 천년에 한 번 오기 때문이다.

오십 세대마다 천년기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제삼천년기의 문을 여는 것은 독특한 역사적 순간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문(21세기)에 도달함으로써 인류는 단지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천년기를 넘어서게 된다.”(「제삼천년기」 33항)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신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리키는 이 시대의 표징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분발하여야 한다. “흔히 우리 눈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이 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현존하는 희망의 표징들을 더욱 잘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제삼천년기」 46항)

이 “역사적 순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호소력있게 복음 메시지를 선교하고 증언하여야 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미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모으라고 외침으로써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새로이 의탁하고 투신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공동체들, 곧 가정, 이웃, 일터, 시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게 된다.

4. 2000년 대희년을 앞둔 이 준비 기간은 복음화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만일 우리가 이 준비 기간을 역사적으로 독특한 시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새로운 힘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주시는 성령의 현존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이 과업은 모든 신자가 해야 하는 몫이다. 그것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특히 가정, 일터, 학교, 이웃 그리고 재충전과 여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는 우리가 증언하는 데 필요한 굳센 힘을 주고 복음을 향한 열망을 키워준다.

-대희년 맞이 2,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라」를 참조 인용 하였습니다-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1999년 5월 26일)을 맞이합니다.

무주구천동 별장콘도
스위식풍경 40평형 단독별장
방 3, 욕실 2, 거실대형, 주방
장성래(레오나르도)
무주리조트 건너편
☎ (0657) 322-1241, 4081

알뜰가구할인매장
전자제품, 가구, 침대, 쇼파
생활용품 일체
중고에서 -> 신품까지
활일수(프란치스코)
김영선(글라라)
익산 쌍방울 사거리에서-삼례가는 길
☎ (0653) 832-8245

U-대회 기념
전주 빙상 경기장
온가족이 즐깁니다
연중 일반 영업
단체: 임장로+스케이트대여=3,000원
오재천(안드레아)
중화산동(아우터널-진북터널사이)
☎ (0652) 227-7472

금·은·보석·시계
칸보석
이동주(도비아)
박영실(헤레나)
서신2지구 상업은행 앞
☎ (0652) 75-0076

1998년은 “성령의 해”입니다.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울 호

◎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1. 모임 : ① 레지오 꾸리아 - 5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 자모회 - 8일(수) 전 10시
③ 성령기도회 - 9일(목) 저녁미사 후
④ 애령회 - 10일(금) 후 8시
⑤ 바오로회, 베드로회, 요셉회 - 12일(주일)
2.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주일 전 9시 30분, 수요일 후 8시에 있음
3. 구역성화 : 반도임 및 제례회에 정성껏 참여하시길.
4. 고백성사 : 매 미사전후 20분씩 볼 수 있음.
5. 성심부녀회 : 성전 기금을 위한 각종 판매물에 협조바람.
6. 청년레지오 : 35세 이하의 미혼 남녀님. 회합 - 매주 목요일 후 8시
7. 축! 혼인 : 12일(주일) 12시 30분
신랑 - 오국표(체르지오), 신부 - 임희진(로사리아)
8. 어린이 세례 : 어린이 세례 및 첫영성체 * 접수 - 19일(주일)까지
9. 초 · 중 · 고 여류 신앙학교 : 21일(화) ~ 26일(주일)
10. 특별헌금 : 금주 봉헌자 - 2명 20만원
11. 교무금 안내 : 교무금은 신납하시고 월납을 부탁드립니다.
12. 금주 전례 : 해설 - 박종구, 독서 - 이동수(요셉부페르띠노) 부부 봉헌 - 김무웅(시몬) 가정
13. 차주 전례 : 해설 - 박수환, 독서 - 김태연(라파엘) 부부 봉헌 - 문송옥(안드레아)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543,100원 □ 교무금 : 2,644,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용

-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환영식 - 오늘 공식미사중, 입교신청서 사무실에 접수
* 교리 : 주부반 - 화요일 전 11시, 직장반 - 화요일 후 8시
- ◎ 오늘 :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1. 금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 성령기도회 - 7일(화) 후 8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① 울드레아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동산회 - 후 2시, 성당에서 출발
* 차주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4. 환자 봉성체 : 10일(금) 후 1시, 수녀님
5. 전입가정 환영! : ① 김재규(시몬) T. 72-1968, 현대A 101-101
② 박종선(토마스) T. 254-2138, 신일A 102-1107
③ 김경희(아가페) T. 78-0360, 10구역 3반
④ 이화자(마리아) T. 75-3997, 12구역 3반
6. 부지헌금 2차신립 감사! : 이 선 5만, 누계 - 6,090,000원
* 신립하신 부지헌금을 납부하시길 바람.
7. 독서 : 금주(새벽) - 박수홍, 서금자, 차주 - 오장수, 정강선(공식) - 안길경, 정미숙, 차주 - 장철호, 이정아
8. 미사 안내 : 금주 - 결순하신 모후Pr., 차주 - 황금의 궁전Pr.
9. 주차 안내 : 금주 - 사도들의 모후Pr., 차주 - 구세주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835,750원 □ 교무금 : 3,406,000원
□ 2차헌금 : 706,55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최 공 열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1. 모임 : ① 사목회 임원연수 - 오늘 후 2시 30분, 치명자산
② 테니스, 등산 - 다음주일 후 3시
③ 구역(반)장 - 8일(수) 미사 후
④ 본당 M.E - 9일(목) 미사 후
2. 축! 첫영성체 : 2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초등부 신앙학교 : 21일~25일
4. 중 · 고등부 신앙학교 : 24일~26일
5. 매주 목요일은 가정방문의 날 : 첫주는 제외하고
6. 북한동포를 위한 성금에 정성을 모읍시다.
7. 오늘 : 성소후원회비 납부일입니다.
8. 장고(풍물) 감승 : 매주일 후 3시 누구나 환영합니다.
9. 전입가정 환영 : 이상만(베드로), 강순희(미카엘라), 최홍규(베드로), 김은정(분다), 김현주(세실리아), 김연수(암브로시아)
10. 차주 전례 : 해설 - 박태승, 독서 - 강성근 · 국혜원
11. 청소년봉사 : 5구역 전례

□ 지난주 봉헌금 : 1,493,800원 □ 교무금 : 2,282,000원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1.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회의, 애령회, 울드레아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 있음
* 음반보급 - 대구교구 산격동, 상인동, 인동성당(구미)
2. 예비신자 교리 : ① 성모승천반 - 7일(화), 8일(수) 후 8시
② 성탄반 - 8일(수), 9일(목) 후 8시
 3. 성기연습 : 7일(화) 후 8시 4. 사목회 : 8일(토) 후 7시 30분
 5. 사목방문 : 10일(금) 후 2시
 6. 구역미사 : 10일(금) 후 7시 30분 - 신일
 7. 첫영성체자 고백성사 : 11일(토) 후 8시
 8. 초등부 신앙학교 : 20일(월)~24일(금)
 9. 중 · 고등부 하계 수련회 : 20일(월)~22일(수)
살레시오 청소년 교육회관(대전)
 10. 차주 모임 : ① 대진회 - 낮미사 후
② 대의원 야유회(교당 수련원) - 낮미사 후 * 저녁미사 없음
 11. 청소년봉사 : 11일(토) - 로사리오의 모후Pr.
 12. 페뎀 정리 : 11일(토) - 바다의 별Pr.
 13. 화단정리 : 11일(토) - 성조들의 모후Pr.
 14. 금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최정순, 저녁 - 정인자
 15. 차주 전례 : 새벽 - 관순옥, 낮 - 김영중, 저녁 - 이영숙
- 지난주 봉헌금 : 1,049,050원 □ 교무금 : 2,530,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16,870,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 오늘 : 초 · 중 · 고 여류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올해는 본당이 정한 「선교 실천의 해」 : ① 예비신자 인도
② 귀는교우 회두 ③ 거주불명교우 확인 및 관리
④ 이웃돕기 실천 등 선교활동에 최선을 다합시다.

1. 금주 모임 : ① 성체봉사자 모임 - 7일(화), 12시 ② 성모회 - 8일(수) 전 11시 ③ 예루살렘회 - 11일(토) 전 10시 ④ 자모회 - 11일(토) 3시미사 후 2. 환영! 주교님 본당 사목방문 : 10일(금) 전 10시 * 사목회 임원 및 제단체장들의 참석요망 - 전 9시까지 10일(금) 새벽미사 없으며 전 9시 30분 미사만 있음
3. 성서교리교실 : 매주 화 오전반(11시~12시), 저녁반(8시~9시)
4. 성체회 관상기도피정 : 16일(목) 전 10시~후 5시
5. 이웃사랑 기금 : 21일부터 28일까지 1,955,000원 * 6월 28일까지 입금총액 - 64,487,000원,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 전입가정 환영 : 서이순(안젤라) - 삼천동 쌍용A 105-411, 정영자(마리아) - 호지동 주공2단지 2-301 강은영(수산나) - 호지동 1가 574의 5
7. 여름 신앙학교 : 중교 - 20일(월)~22일(수), 살레시오 수련회 초등 - 20일(월)~23일(목) * 사무실에 신청 바람
8.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우체국 주변구역
9. 동양화 양초 판매 : 강봉호 화백 그림(1자투 - 만원) 성물방에 있음
10. '내친구들' 7월호가 나왔습니다 : 성물방에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1,335,350원 □ 교무금 : 3,130,000원

호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김 영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2,420단
누계 - 884,410단

1. 금주 모임 : ① 천주의 모친Cu. - 전 9시
② 성령기도회 - 8일(수) 후 8시
③ 자모, 성모, 성심회 - 10일(금) 10시미사 후
④ 울드레아 - 10일(금) 후 8시
2. 축! 건진성사 : 175명 축하드립니다.
3. 사제양성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4. 성체강복 : 8일(수) 10시미사 후 5. 봉성체 : 10일(금)
6. 저장을 마는, 것감을 판매합니다.
7.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권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1,580,000원(11세대)
9. 미사시간 안내 : 평일 : 월~금 - 전 6시, 화, 목 - 후 7시 30분, 수, 금 - 전 10시, 토요일 : 전 3시(어린이미사), 후 7시 30분 주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30분
10. 차주 : 애령회, 제대회
11. 금주 전례 : 해설 - 한정아,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임낙규, 서쌍옥 부부
12. 차주 전례 : 해설 - 여태구, 독서 - 정신호, 김홍숙 봉헌 - 박영근, 최금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230,800원 □ 교무금 : 3,767,000원

“귀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니다!”